

<서평>

## *Food and Drink in the Biblical Worlds*

Athalya Brenner 편

Semeia 86,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유윤종\*

### 1. 시작하는 말

이 책은 미국 성서학회(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세미아(Semeia)」 86호 (1999)이다. 이 학술지는 성서학 학술지 가운데 가장 전위적 학술지임을 표방한다. 일반 인문학의 이론을 성서학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잘 알 수 있는 개척자 역할을 수행하는 학술지이다. 이 학술지의 또 다른 특징은 매 회마다 관련된 논문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출판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제의 폭이 매우 좁은 것은 아니다. 이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들을 보면 매우 다양하며, 새롭고 참신한 주제를 포함한다. 이 학술지 86호는 캐롤(Robert P. Carroll) 교수의 갑작스런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그를 기리는 호로 발간되었다. 그는 영국 글래스고우 대학의 구약학 교수였으며, 그의 글 한 편이 이번호에 실려 있다.

86호의 주제는 ‘성서 세계에 나타난 음식과 음료수’이다. 먹고 마시

---

\* 평택대학교 교수, 구약학

는 문제는 인류의 태생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인류의 영원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서학에서 이 주제는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주목을 받았다고 해도,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금기의 음식과 같은 특이한 주제에 한정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책은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보다 폭넓게 일상적인 것, 사소한 것, 소홀히 다루어진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를 요구한다. 학술적이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기획되었다기보다 음식물에 대한 다양한 글들을 느슨한 주제로 묶어 편집되었다는 점이 단점이자 장점이다.

이 책은 크게 다섯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I. 음식 생산과 마케팅(프릭, 매튜, 그림쇼), II. 유혹적인 메뉴(애플러, 맥킨레이, 콜리), III. 상상의 음식들(브렌너, 캐롤), IV. 먹지 않는 것에 대하여(샤론), V. 사회적 표시로서의 음식(데이비스, 브롬버그 크라우스, 톰슨), VI. 답변들(바흐, 보야린, 라인하르츠)이다. 총 15편의 논문이 각 주제에 1-3편으로 묶여 분류되어 있다. 시대로 분류하자면, 고대 근동과 구약성서 시대에서, 쿰란을 거쳐 신약시대를 넘어 초대교회 시대에까지 이른다. 다루고 있는 텍스트는 고대 근동의 자료들, 구약성서, 쿰란, 신약성서, 외경, 유대교 유월절 세데르(Passover Seder: 유대교 유월절 음식 규정)까지 망라한다.

## 2. 각 논문에 대한 요약 소개

프릭(Frank S. Frick)은 고고학자이다. 따라서 그의 논문 “‘튼튼한 바위에서 나오는 기름’(신 32:13): 사회 유물론적 관점에서 본 히브리 성서에서의 올리브 재배와 올리브 기름 추출 과정”은 올리브 재배, 수확, 기름 짜는 기술 등을 고고학적으로 소개하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것의 사회 경제사적 의미를 찾는다. 기름을 목적으로 재배된

올리브는 고대 이스라엘의 3대 주요 농산물 가운데 하나이다. 올리브는 구약성서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함께 5회 나타난다(민 8:12; 신 28:51; 대하 32:28; 렘 31:12; 욥 1:10). 성서에 약 56회나 등장하지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술이나 생산지, 사회 경제적 삶에 미친 영향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올리브 농사와 관련된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프릭은 올리브 농사는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는 것도 중심 주제라고 주장한다(삼상 8:14). 그리고 텔 미크네와 에그론의 고고학적 증거로 보아 올리브 생산지역과 제단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올리브 기름은 제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증거를 우가릿의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프릭은 성서의 증거가 미약하고 현재의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올리브에 대한 사회, 종교, 환경, 경제적 측면까지 모두 밝히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인정한다.

매튜(Victor H. Matthews)도 성서 고고학과 고대 근동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심을 가진 학자이다. 그의 글 “포도를 밟기: 고대 근동에서의 포도 재배의 실재와 은유”는 포도 재배에 관한 고대 근동지역의 텍스트와 고고학적 증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포도 재배와 그것의 문학적 사용을 분석한다. 포도는 성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과일이다. 포도 재배로 과일인 포도뿐만 아니라 건포도, 포도 주스, 포도주 등이 나온다. 매튜는 포도 재배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경우 기후와 토양이 잘 맞지 않아 제한된 지역에서 생산되었지만,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산악지역은 포도 재배에 적합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과일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맥주가 메소포타미아의 주 음료인 반면, 시리아 팔레스타인은 포도주가 주 음료였다고 말한다. 따라서 포도 재배는 고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재물과 흥망성쇠, 언약과의 관계에 대한 은유로 큰 역할을 한다. 구약 성서의 예언서에서 포도는 중요한 은유로 나온다. 왜냐하면 포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가장 친숙한 농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이시아서의 “포도원지기의 노래”(사 5:1-7)이다. 매튜는 이 시에 나타난 포도 재배의 은유적 사용을 분석한다. 포도원 소유주의 기대가 실패한 것은 유다 왕정에 대한 효과적 고발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대규모의 파괴는 포도원이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의 혼돈된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며, 역설적으로 그것은 새로운 세계의 생성을 위한 과정의 시작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저자는 포도원을 매개로 한 이시아의 심판 은유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림쇼(Jim Grimshaw)는 누가 공동체를 사회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연구한다. 그의 논문 “누가의 시장 교환 지역: 누가의 부유한 도시 센터를 주변부화 시키기”에서 그림쇼는 음식의 교환 장소를 연구하여, 누가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주장되어온 대로 도시 공동체가 아니라, 시골지역까지 확대된 폭넓은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누가복음의 재물에 대한 연구는 도시와 시골을 양극화시키는 경향을 띠어 왔다. 즉, 도시 지역에는 부자가 살며 시골지역에는 가난한 자들이 살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양극화 때문에 누가 공동체는 도시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시골 회원들이 도시 공동체를 넘나든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부자, 즉 도시 공동체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데 소유가 거의 없는 가난한 이웃을 구하는 자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논문에서 반대로 해석한다.

즉, 음식이 물질적 소유로 여겨질 때, 공동체의 위치뿐만 아니라 도시와 시골지역의 관계는 역전된다고 주장한다. 음식의 생산과 교환에 대한 관심은 공급이 풍부한 시골지역과 작은 도시 및 도시 사람과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시골 회원들은 단지 구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재물을 활발하게 공급하는 자이다. 이 공동체는 도시 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지역을 교환할 때 시골 지역 전체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누가복음 13:18-19의 겨자씨 비유를 예로 든다. 겨자씨 한 알에

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쉴 공간을 마련하고, 그 가지는 모든 피조물에게 음식을 공부하는 큰 왕국이다. 그림쇼는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린 후 자라, 음식이 되어 시골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까지 공급되는 것은 시골과 도시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음식을 생산하는 시골 지역과 시골에서의 일은 매우 가치가 있으며, 도시 거주자는 그 생산에 의지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누가 공동체는 농촌과 도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결론짓는다.

드보라 애플러(Deborah A. Appler)의 논문, “여왕에서 주방까지: 이세벨 이야기에 나타난 음식 이미지”는 열왕기상 17장-열왕기하 9장에 나타난 이세벨 이야기에 나타난 음식 이미지 연구를 통하여 이세벨 이야기를 하나의 거대한 식탁 잔치를 벌이는 과정으로 본다. 즉 입맛을 돋우는 음식, 주요 메뉴, 야채, 디저트, 찌꺼기의 순서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무척 재미있는 발상이다. 이 이야기에서 입맛을 돋우는 음식은 이세벨과 아합 통치 하의 이스라엘 사회의 피폐와 흉년으로 생긴 기근이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지위가 올라가자 가뭄이 시작된다. 바알 예배의 무용론은 증가된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공급한다. 이스라엘 사회의 피폐와 흉년으로 이스라엘은 주 요리를 먹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의 피폐와 흉년은 식욕을 돋우는 음식이다. 코스 요리 가운데 주 메뉴는 쇠고기 불고기이다. 갈멜 산 위에서 하나님이 먹는 음식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희생 제물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꺼번에 드신다. 고기만 먹어서는 보충이 안 되는 비타민을 먹기 위해, 아합의 채소 정원에서 자란 야채도 가지고 온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여호와와의 식탁에 오른 야채 역할을 한다. 이제 디저트가 남아 있다. 남은 음식은 이세벨뿐이다. 이세벨은 주 요리를 마치고 먹는 디저트 역할을 한다.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은 다음 남은 것은 그녀의 해골,

밭, 손가락뿐이다. 다 먹고 남아야, 잔치가 풍성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남량 특집같이 섬뜩한 이야기이다.

맥킨레이(Judith E. McKinlay)의 논문, “먹느냐 마느냐: 이 선택에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는 히브리 성서의 세 본문(창 2-3장; 잠 9장; 삼상 25장)에 나온 음식 모티프가 기호로 사용되었다고 밝힌다. 맥킨레이는 기막힌 상상력의 연결을 통하여 세 본문을 하나의 기호로 읽어낸다. 세 본문에는 먹느냐 마느냐의 선택이라는 기호가 숨겨져 있다. 첫 번째 텍스트는 창조 이야기를 통한 음식의 준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암시했지만, 창세기 2-3장에서 음식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구별하는 기표가 된다. 잠언 9장에 나타난 지혜 여인이 지혜인가? 미련한 계집인가 라는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얻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다윗 이야기의 텍스트는 실질적인 제3의 과정으로 음식의 선택이 즉각적인 죽음이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 준다. 이 본문에서 아비가일은 음식을 제공하는 여성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비가일 속에 나타난 하와와 지혜 여인의 목소리는 이 부호의 해독자를 위한 메시지가 먹느냐 마느냐를 질문할 뿐만 아니라, 이 선택에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다.

콜리(Kathleen E. Corley)의 논문 제목은 “도마 복음서에 나타난 식탁에서의 살로메와 예수”이다. 그는 외경 도마 복음서의 말씀 61(Saying 61)에 나타난 살로메와 예수의 식사 장면을 연구하여, 이 장면이 시리아에서 기원되었으며, 시리아의 금욕주의 그룹의 공동 식사 관습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예수가 여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다는 것은 도마 복음서가 유일하다. 이것은 도마 공동체 내의 여성 수도자에 대한 지위를 말해준다. 시리아의 여성들은 금욕주의의 실천을 통하여 남성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결과 그들은 금욕주의로 보다 높은 남성적 영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로마 전통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살로메는 도마 공동체의 식탁 교제에 허용되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성으로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장면은 도마 복음서를 영지주의 텍스트로 규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오히려 도마 복음서의 말씀 61은 일반적인 헬레니즘의 배경과 공통된 사고와 관습, 보다 구체적으로 시리아 기독교 금욕주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저자는 결론 내린다.

브렌너(Athalya Brenner)는 그녀의 논문 “사랑의 음식: 아가서에 나타난 성화된(gendered) 음식과 음식 이미지”는 아가서에 나타난 먹고 마시는 언어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미지화시킨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린다. 첫째, 아가서에 나타난 음식은 채식이라는 것이다. 호두, 건포도, 꿀, 우유, 밀, 포도주, 물, 주스, 기름, 석류, 무화과, 대추야자 등. 둘째 음식물을 생산하는 장소를 찾아 낸다: 정원, 숲, 포도원, 과수원, 들판 등이다. ‘정원’, ‘과수원’, ‘밭’이라는 이미지로 보아,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온 목가적 유토피아적 배경이라기보다는 재배된, 문명화된 배경을 말해준다는 점이다. 셋째, 본문에서의 용어를 분석해 보면, 성 구분도 가능하다.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는 남성이다. 남성 연인은 고벨화 송이(아 1:14)로 묘사되어 있다. 여성 연인은 석류, 잣과 꿀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모세 오경과 다른 곳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약속의 땅의 소산이다. 또한 포도주, 포도, 포도원도 약속의 땅의 상징이다. 넷째, 예언서에 나타난 ‘사랑’, ‘은유’는 음식과 관련된 사랑과 욕망을 연관시킨다. 그러나 아가서에서 여성 연인은 음식 공급자를 양육하는 자로 나온다. 반면 예언서에서 하나님인 남성 연인은 음식의 공급자로 나온다.

캐롤(Robert P. Carroll)은 그의 논문 “야웨의 신 포도: 히브리 성서의 예언 대화에 나타난 음식과 음료수 이미지”에서 예언서에 나타난 먹고 마시는 이미지 가운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 소 예언서에 나타

난 ‘신포도’ 모티프에 나타난 파괴적 개념을 연구한다. 연구 결과 캐롤은 일반적인 경우와 은유적 측면으로 구분한다. 먼저, 먹고 마시는 이미지는 일상적인 삶의 과정이다. 이는 음료수의 가장 일반적인 이용이다. 둘째, 음식의 손실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방 국가의 침략, 기쁨과 역병, 질병, 메뚜기 떼의 습격의 은유로 이용된다. 예언서에 나타난 음료수의 이용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다 다룰 수가 없다. 그 가운데서도 캐롤은 이사야 5:1-7의 ‘야웨의 신포도’의 개념을 비춘다. 이것은 예언 문학에 나타난 야웨의 정의의 개념을 해체시키는 파괴적 개념의 약속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캐롤의 연구에서 전복적인 순간이며, 새로운 전기를 위한 긍정적인 시점이다. 왜냐하면 파괴의 순간은 잠재적 발전을 위한 시작임을 알려주며, 미래의 예언 문학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캐롤의 결론은 앞의 매튜의 글에 나타난 결론과 유사하다.

샤론 (Diane M. Sharon)은 그의 논문 “아버지가 먹기를 거부할 때: 성서 이야기에 나타난 음식과 음료수 거절의 수사어구”에서, 아버지가 먹기를 거부한 두 텍스트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텍스트 상호간의 연구를 통하여 비교하고 각 성서 본문의 의미를 상호간 비추어보고 해석의 풍부함을 제공한다. 아버지가 먹기를 거부한 첫 번째 텍스트는 레위기 10:1-20이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향하지 않아, 야웨 앞에서 죽었다. 그러자 아론은 침묵한 채, 제의적으로 규정된 음식을 먹지 않고, 번제를 드린다. 본문에서 아론의 성격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텍스트에 나타난 그의 성격으로 보아, 아론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하지 않은 재앙에 분노한다. 두 번째 텍스트는 사무엘하 12:1-23이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아들을 얻지만, 죽는다. 다윗은 먹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다윗은 처음에 아들의 죽음에 무관심하지만, 곧 고통스런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 음식 거부 수사학은 성서의 몇몇 이야기에 민감하고도 미묘

한 문학 기법으로 나타난다. 샤론은 텍스트 상호 간의 연구와 독자 반응 비평을 통하여, 금식이나 식사 거부와 같은 작은 요소들의 풍부한 해석을 통하여 간략하게 묘사된 텍스트의 본문을 풍부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데이비스(Philip R. Davies)의 논문 “음식, 음료수와 종파들: 쿰란 텍스트에서의 음식물 섭취 문제”는 육체는 사회를 위한 모델로서 문화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더글라스(Mary Douglas)의 주장을 쿰란 문학에서의 먹고 마시는 기능에 적용한 것이다. 더글라스는 사람의 몸이 어떤 경계를 지닌 체계를 나타내는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더글라스는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에 주목하여, 그것은 오염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성서의 레위기 15장은 대소변을 불결한 배설이라고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글라스는 몸과 사회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소수자 사회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데이비스는 쿰란 공동체의 야하드(Yahad)와 다마스쿠스 두 종파의 체계를 비교했으며, 앞선 다마스쿠스 종파와는 달리, 소수이며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야하드 종파는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접촉을 완전히 단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룩한 몸으로 종파를 구성하려고 했다. 그들에게 공동 식사는 함께함의 상징이었으며, 그들의 몸을 성전으로 생각했으며, 몸의 음식물 섭취는 재물에 드러지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이었다. 그 결과 데이비스는 공동 식사에 부가된 각각의 다른 상징적 가치는 다른 사회적 구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본질에 대한 다른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크라우스(Jonathan Brumberg-Kraus)의 논문 “‘빵만으로도가 아니라...’: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 세데르(Seder)에서의 음식과 식탁 이야기의 제의화”는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 세데르를 비교한 후 그리스 로마시대의 향연 문학과 의 관계를 연구한다. 즉, 최후의 만찬을 기록한 초기

기독교인과 유월절 세데르를 쓴 유대교 랍비는 그들의 근간이 되는 신화를 제의화시키기 위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향연 문학 전통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제의 행위와 제의 텍스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 제의에 관한 인류학적 이론에서 끌어와, 이 글은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 세데르에 나타난 “제의화의 전략”과 “제의화된 은유”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기독교 성찬식은 분리와 재통합의 제의이다. 즉, 1세기 시대의 유대인과 분리하고, 동시대의 기독교인과는 결합하는 의식이었다. 유월절 세데르는 주로 동시대의 유대인과 그들의 조상의 단절되지 않은 연결을 강조하는 재통합의 의식이다. 이 의식에서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성서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행위와 연결시켰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글로 쓴” 음식을 소화하는 것은 성서를 은유적으로 제의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제의 참가자 각각을 ‘체현된 토라’, 육화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유대교 혹은 기독교의 신화를 내면화시키는 경험이라고 결론내린다.

톰슨(Peter J. Tomson)의 논문 “초기 기독교 공동체 대화에 나타난 유대 음식법”은 음식법을 둘러싼 유대교 내의 의미와 그 전통을 잇는 기독교 공동체와의 관계를 찾고자 한다. 음식에 관한 습관은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다. 음식은 대개 같이 나누기 때문이다. 유대교에서 그러한 습관은 정형화된 음식법의 체계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것은 공동체와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규정하는 도움을 준다. 이것은 신약성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유대교 내에서 발생한 공동체의 초기 행적을 정리한 신약성서는 많은 비유대인을 매혹시켰으며, 반 유대교 이방인 교회를 탄생시켰다. 신약성서 정경은 이 교회의 힘으로 생성되었으나, 많은 면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글로 구성되어 있다. 유대교의 음식법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 그들은 고대 유대교 법의 용어를 사용한다. 음식물 규정, 레위인의 순결, 우상 숭배에 속한 법 사이의 필요한 구분을 설정한 후, 이 논문은 3세기 이후

기독교의 교부들이 어떻게 이 모든 유대교 법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폐지될 책으로 규정했는지 살핀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성서를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 담화의 기능에서 신약성서를 읽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마음에 두고 읽는다면, 신약성서 작품은 스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신약성서는 유대교 음식법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며, 유대교 음식법의 전반적인 거부는 바르 코흐바 전쟁 이후의 기독교 자료에서만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 책에는 위의 글들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으로 바흐(Alice Bach)의 “그들의 말씀 먹기”, 보야린(Daniel Boyarin)의 “이론이나 실험이냐의 문제?”, 라인하르츠 (Adele Reinhartz)의 “식탁 교체와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회고”의 글이 더 있지만, 지면관계상 소개를 생략한다.

### 3. 나가는 말

이 책에 소개된 15편의 논문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방법론이 독립적이거나 통합되어 나온다. 첫째, 고고학에 근거한 사회 인류학적 방법론이다. 음식은 일상적인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므로, 사회 인류학적 연구를 필요적으로 요구한다. 팔레스타인 고고학은 이러한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성서에 묘사된 음식과 음료수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고고학적 증거도 충분치 않다. 따라서 고고학적 자료와 성서 본문을 토대로 성서 시대의 사회를 재구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며, 성서 본문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둘째, 문학적 방법 가운데 은유, 이미지 연구이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도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은유와 이미지는 무수히 많다. 이는 온 인류의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 책도 주로 이러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이고 종합

적이지 못하며, 체계화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새로운 연구 분야로 무궁무진한 논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박사 학위 논문 주제로도 많이 나온다. 다만 전통적인 신학 방법론인 신학적 주제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즉, 일반 문학 이론과 다양한 독서를 통한 상상력은 성서의 본문 읽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예언적 상상력을 불러와 메시지 전달에 풍부함과 흥미, 설득력을 불러올 것이다.